

수능

2012학년도 수능 전망

사탐·과탐 최대변수될 듯

선택과목 3개로 축소돼 응시자 수 예측 어려워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는 사탐·과탐 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교과부의 수능 난이도 조정 목표가 전 영역 만점자를 1%선으로 유지하는 것이지만, 탐구 영역의 경우 사실상 난이도 조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선택 과목에 따라 수험생의 희비가 갈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선택과목 응시생 수가 최대 10만여 명 차가 날 수 있다는 점도 난제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집단위 학생 수가 안정적인 영역

였지만 올해는 3과목으로 축소되면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응시자 수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성 원장은 이들 탐구영역에 대해 "작년을 기조로 해서 비슷하거나 더 쉽게 낼 것"이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 사탐·과탐의 세부 과목별 응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영역별 만점자 1%'라는 올해 수능 난이도의 조정 목표를 사탐과 과탐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과목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방뉴스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맞추기 난감

6월 모의평가 바탕 과목 난이도 조절

에서는 가능한하면 영역별 만점자가 1%가 되도록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그러나 학생 수 변화가 심한 영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다. '모집단위 학생 수가 안정적인 영역'은 언어·수리·외국어, '학생 수 변화가 심한 영역'은 올해부터 선택과목수가 줄어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가리킨다. 2008년 12월 교과부가 예고한대로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수가 작년까지는 4과목이

영역별 만점자가 1%가 되도록 출제 하겠다던 목표치를 유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올 수능에서 화가 심한 영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다. '모집단위 학생 수가 안정적인 영역'은 언어·수리·외국어, '학생 수 변화가 심한 영역'은 올해부터 선택과목수가 줄어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가리킨다. 2008년 12월 교과부가 예고한대로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수가 작년까지는 4과목이

취보겠다고 설명했다.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성 원장은 "수험생 60만명이 일제히 보는 것을 전제로 난이도를 조절하다가 10만명 쯤의 대규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고 예측했다. 그는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생들이 응시과목 접수를 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난이도를 조절해 보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응시자수를 보면 언어 66만18339명(전체 수험생 대비 99.9%), 수리가 14만15천124명(21.7%), 수리나 48만1413명(72.4%), 외국어 65만7895명(98.3%)이었다. 이처럼 언어와 외국어는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수리나와 수리나도 이과·문과생 대부분이 치르는 추세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사회탐구도 11개 과목 가운데 2011학년도도의 경우 응시자 38만 7887명중 윤리(51.8%), 한국사(61.5%), 한국현대사(61.0%), 사회·문화(74.2%) 등 많이 선택되는 과목이 뚜렷했고 이런 비율은 매년 비슷했다. 과학탐구도 지난해 응시자 22만7천264명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I, II 과목을 고르게 응시했고 이 비율은 매년 유지됐다. 입시전문가들은 사탐·과탐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3과목으로 제한되긴 했지만 기존에도 대학들이 2과목 정도만의 상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방뉴스

2012수능 영역별 문항수·출제범위

Table with columns: 구분영역, 출제범위, 문항수, 유형, 배점. Rows include 언어(80분), 수리(100분), 외국어(영어 70분),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40분).

2011학년도 수능 분석표

2011학년도 수능 시도별 표준점수

Table showing standardized scores for 2011 by region (시도) and subject (언어, 수리나, 외국어).

2011학년도 수능 평균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

Table listing the top 30 municipalities for standardized scores in 2011, including rank, subject, and score.

2010~2011학년도 평균 표준점수 향상 시군구 순위

Table ranking municipalities for improvement in standardized scores from 2010 to 2011.

2011학년도 수능 시도별 등급비율

Table showing grade ratios for 2011 by region (시도) and subject (언어, 수리나, 외국어).

수리나

Table showing grade ratios for Mathematics (수리나) by region.

외국어

Table showing grade ratios for Foreign Language (외국어) by region.

Large advertisement for '진검승부' (Real Battl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xam. Includes text about exam benefits, a list of real estate listings (신진공인중개사, 금산공인중개사, 대인동삼일부동산, 다산공인중개사), and details about the exam itself.